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국회 통과 약속

민주당 최문순 후보 · 송훈석 의원 등 기자회견 ... 남북협력기금 사용 가능토록 노력

도지사 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최문순 후보와 송훈석 국회의원 등 민주당 관계자들이 고성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접경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의 국회 통과와 예산지원 등을 약속했다.

지난 19일 오후 1시30분 군청 제2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기자회견에는 최문순 후보와 송훈석 의원을 비롯해 조배숙 최고위원, 최종원 강원도당 위원장, 백원우 의원, 장세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백원우 의원이 발의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지난 18일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앞으로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다만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가 지속적으로 요청한 접경지역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는 문제는 정부 부처의 반대로 무산됐으며, 앞으로 기금사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문순 후보는 "강원도 전역을 돌아다녀보니 생각보다 어려우며 특히 접경지역과 동해안이 어려운데, 고성군은 27지가 겹쳐 더욱 어려운 것 같다"며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남북협력기금 2조6천억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또 "고성지역에 제2의 개성공단을 만들고, 남북합작 제철소를 건설하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권교체가 필요하지만, 이명박 정부 중에도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뉴욕 필하모닉이 북한에서 공연을 할 때 북한에 처음으로 성조기가 내걸렸던 적이 있는데, 그 때로 돌아가야 한다"며 "앞으로 접경지역을 평화지역이라고 불렀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송훈석 국회의원은 "15대 국회에서 저와 고 이용삼 의원이 주도가 돼 접경지역지원법을 만들었으나, 그동안 실효성이 약해 무늬만 지원법이었다"며 "백원우 의원이 주연이 돼 종전 접경지역지원법을 강화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발의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우선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힘쓰고, 다음으로 이 법안을 보충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법안을 다음달 중에 별도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한나라당 김성식 국회의원이 지난 21일 낮 5시께 간성을 시가지에서 엄기영 후보 지지유세를 하고 있다.

“쌘꾼 아니라 일꾼 뽑아야”

김성식 국회의원 엄기영 후보 지원유세

4월 27일 실시되는 강원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기호1번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 지원유세가 지난 22일과 23일 이틀간 간성을 시가지 일원 등에서 진행됐다.

한나라당 김성식 국회의원은 지난 22일 유세차량에 올라 간성터미널에서부터 상리고개까지 지원유세를 펼쳤다.

김 의원은 "서울 출신인 제가 이곳 고성까지 온 것은 엄기영 후보가 강원도를 살릴 적임자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라며 "고성군과 강원도가 다시 웃을 수 있느냐, 절망하느냐는 엄

기영 후보가 당선되느냐 마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 고성군은 금강산관광 중단 등으로 많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러분들의 뜻을 중앙 정부에 전할 수 있는 후보가 바로 엄기영 후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도지사는 말뿐인 쌘꾼이 아니라 일꾼을 뽑는 선거"라며 "주민을 받드는 도정, 일자리가 넘치는 도정, 생산적인 도정을 이끌어 갈 엄기영 후보와 함께 강원도를 웃게 만들자"고 역설했다.

최광호 기자



지난 19일 오후 1시30분 군청 제2청사 대회의실에서 민주당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기자회견이 열렸다.

투표 오후 8시까지 가능

4월 27일 실시되는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의 투표는 2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이번 선거는 19세 이상

(1992년 4월 28일 이전 출생자)이면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도 투표를 할 수 있다.

고성지역은 간성을 제1투표소인 고성문화의 집을 비롯해 총 23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투표가 진행되며, 개표는 고성군청 제2청사 대회의실에서 오후 8시부터 실시된다.

최광호 기자

“대학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라”

강원대총학생회, 일부 전 총학생회장들 특정후보 지지 철회요구

강원대 학생들과 동문 모두가 특정 후보 지지하는 양 오해 불러

강원대학교 제44대 총학생회와 18개 단과대학 학생회는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4월 27일 실시되는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와 관련 일부 전 총학생회장들이 최문순 후보 지지를 선언한 것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강원대 총학생회는 "일부 전

총학생회장들이 모여 특정 정당 도지사후보 지지선언을 함으로써 강원대 학생사회가 정치적으로 휘말리게 되었다"며 "우리는 그들의 지지선언에 앞서 강원대 총학생회 명의를 이용한 지지선언을 중단할 것을 전 총학생회장들에게 정중히 요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강원대 총학생회는 "강원대의 미래를 보장한다거나 약속을 받은 것도 없는 상황에서 지지 선언은 대학의 미래를 위하기보다 과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

도지사후보 지지 성명에 강원대 학생사회를 대표하는 총학생회의 명의를 사용한 것은 강원대 학생사회에 대한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후배들에 대한 심각한 결례 행위"라고 했다.

강원대 총학생회는 "더 이상 총학생회장 출신이라는 과거의 지위를 정치적 수단이나 도구로 전락시켜 강원대 학생들과 동문들 모두가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양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과거의 구태의연한 정치적 행위를 중단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원대 총학생회와 18개 단과대학 학생회장들은 △과거 강원대 총학생회장의 지위를 악용한 특정후보 지지선언을 철회하라 △더 이상 개인들의 정치적 성향으로 강원대 학생과 동문들을 혼돈에 빠뜨리는 행위를 중단하라 △건전한 학생사회의 발전을 위해 선배들로서의 도리와 책임을 다하라 등 3개항을 요구했다.

이 성명서는 강원대학교 유기섭 총학생회장을 비롯해 18개 단과대학 학생회장 전원이 연명으로 작성해 언론사에 배포했다.

최광호 기자